



기획시리즈

변 병 호 / 입업연구원

산림 미생물과장

11, 12월의 해충 (II X VII)

- 흰가루병 (白粉病)

Phyllactinia corylea 등 -

흰가루병은 활엽수의 잎과 신초에 발생하는 병으로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잎에 흰가루가 덮여 탄소동화작용을 방해하고 나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므로 수세가 약화되고 경관을 저해시킨다. 우리나라에는 300여종의 기주식물에서 80여종의 흰가루병종이 알려져 있다.

○분포 : 한국, 전세계
(온대, 열대)

○기주식물 : 참나무류, 밤나무, 단풍나무류, 포플러류, 배롱나무, 가중나무, 붉나무, 개암나무, 오리나무 등 활엽수류

○피해 및 병징 : 잎에 크기가 다른 백색의 반점이 생기며 점차 그 부위가 확대되어 잎 전체에 흰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된다. 피해가 심한 때에는 나무 전체에 흰가루가 덮이게 된다. 어린 나무나 새순에 발생하면 그 부위가 위축되어 기형으로 되고 생장이 억제된다. 주로 늦가을에 피해가 심하나 산림에서는 방제가 필요할 정도의 심한 피해는 없으며 묘목



▲배롱나무 흰가루병 피해



▲흰가루병균의 자낭각 및 자낭포자

에서는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묘목의 형질이 떨어진다. 조경수 중에서는 배롱나무 군식지에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여 경관을 크게 저하시킬 때가 있다. 주로 여름에는 잎에 흰가루가 덮여 있으며 가을이 되면 흰가루 표면 또는 잎 표면에 갈색~흑색의 작은 점상물(小粒点)이 생긴다.

○병원균 : 흰가루병균은 자낭세대(完全世代)와 분생자세대(不完全世代)를 갖고 있는 균으로 여름철에는 주로 분생자세대로 분생포자가 발생하여 계속 반복 전염을 한다. 가을이 되면 환부나 잎 표면에 흑색의 점상물(子囊殼)이 생겨 겨울을 월동한다. 월동한

자낭포자는 발아하여 기주체에 침입 병을 이르키며 여기에서 병의 전염원이 되는 분생포자가 발생한다. 병원균의 균사는 대부분 잎 표면에 붙어 있으며 일부의 흡기(吸器)가 기주식물의 조직속으로 들어가 영양분을 섭취한다.

○방제법 : 병든 낙엽 및 가지에서 병균이 월동하므로 봄 일찌거니 병든 낙엽을 모아 태우고 병든 가지는 가지치기 할때 잘라 태운다. 새순이 나오기 전에 석회유황합제를 1~2회 살포한다. 특히 묘포에는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는 때가 많으므로 장마철 이후에는 반드시 예방 위주의 약제 살포가 필요하다.